

백원국 차관, 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준비 현장점검

- “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한 안전·편의성 점검 및 준비에 만전”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8일 오후 3시,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-A 수서~동탄 구간의 역사(동탄역·성남역·수서역)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역사별 주요 이동동선, 안내 체계, 치안대책 등을 점검하고, GTX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성 및 품질 등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.
- GTX-A 수서~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계획대로 완료하고, 현재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(2.23.~3.13)을 진행 중이다.
- 백 차관은 각 역사의 주요 동선 체계를 점검하며, “출·퇴근 시간대에 열차 출입문, 승강기,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 여객이 밀집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안내요원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 - “안내표지 등도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용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한편, 백 차관은 동탄역 철도경찰대 출장사무소에서 GTX-A 개통 대비 치안 대책을 보고 받고, 테이저건 사격 시연 등 철도경찰 직무장비*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다.
- *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가스분사기, 전가충격기, 경비봉 등
 - 백 차관은 “GTX-A는 SRT와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대심도 교통수단으로, 테러 등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치안 대책을 요구”한다며,
 - “행동 매뉴얼을 보완하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숙달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2024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